

FDI, WHO간 협력 플랜 체결

세계치과의사연맹(FDI)와 세계보건기구(WHO)의 협력플랜 협정이 지난달 10일 파리에서 이루어졌다.

FDI의 하인즈어니 차기회장과 WHO 비전염성 질환국의 데이비드 바머 부국장이 양기구의 대표로 참석한 이 협력플랜은 개발도상국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양기구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더불어 일반보건에 있어서 치과전문의가의 역할을 한층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FDI측은 양기구간의 협력문제를 정책적이며 기술적인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시켰다고 밝혔다.

FDI와 WHO간 체결한 협력플랜의 내용을 보면

- ▲양측대표는 매년 연례 회의를 가지며
- ▲총회시 대표단을 파견, 발표할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 ▲또, 양측 협력활동에 관한 FDI 위원회의와 WHO 구강보건 프로그램 회의시 상대측 대표를 초청하도록 하며
- ▲FDI와 WHO 간의 정보를 교환키로 했다.

전국치대학장협의회 -치의학 교육원 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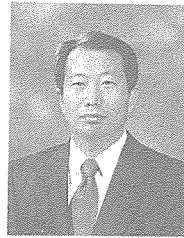
전국치대학장협의회(회장 김수남)는 치과계 발전을 위한

『치의학 교육원』 발기 모임을 지난 17일 엠베서더 호텔에서 개최했다.

전국 11개 치과대학장이 모여 치의학 교육원 설립 후 처음 가진 이번 모임은 『치의학 교육원』 설립발기 이외에도 96년에 실시된 의학계열 대학 평가에 대해서 논의했다.

신상완 교수

국제치과보철학회-임상증례 발표



지난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열린 제 6차 국제치과보

철학회에서 고려의대 신상완 교수가 “간편한 총의치 인상법”이란 제목으로 임상증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날 신상완 교수가 발표한 “간편한 총의치 인상법”은 1968년 영국의 Neill과 Nain교수가 주장했던 인상방법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변형시킨 방법이며, 최근 개발되어 많이 이용되고 쓰기에 편리한 인상재인 poly-vinylsiloxane을 border monding을 인상제에 의해서 2차인상 채득시에 동시에 하는 방법이다.

이 인상법의 장점은 치과의사들이 익히기 쉬우며 인상채득시간이 적게 소요되며 총의

치의 유지나 지지를 얻는데 우수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학회에서 발표 후 세계적인 보철학의 전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새로운 총의치 인상법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기수 교수

-경희치대 신임학장에 취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이상철)은 최근 신임학과장에 이기수 전학과장을 유

임시켰다.

이기수 신임학과장은 대학원학과장을 겸하고 있으며, 학교평가에 관한 제반 준비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치과교정학회

-11월 국제대회부터 보수교육 강화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장영일)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국제대회부터 보수교육 성격의 학술대회를 보다 엄격히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영일 회장은 미국의 치과교정학회의 경우 학술대회시 등록만 하고 불참할 경우 보수교육 미필로 구분되며 강의 도중 최근 2차례의 참석확인을 하여 보수교육관리를 하고 있다

며 인정의를 시행하려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도입 철저한 보수교육관리로 회원들의 실력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齒衛協報』 창간



대한치과 위생사협회 (회장 김숙향)는 최근 협회기관지 『齒衛協報』를 창간했다.

김숙향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협회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

적으로 알려주는 명실상부한 기관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피력했다.

《발간안내》

대한치과교정학회-제25권 3호 발간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장영일)는 학회지 제25권 3호(통권 제50호)를 발간했다. 이번 3호에서는 Robert L Boyd, 전윤식의 『청소년 교정환자들의 치은염 및 치아탈회 조절을 위해 사용한 겔형 불화주석(SnF₂ gel)의 장기간 평가』의 특집 1편과 강보선 양원식의 『성장기 아동과 성인에서의 II급 1류 부정교합치료양상에 관한 두부방사선 계측학적 비교연구』를 필두로 9편의 원저가 실려있다.

차트 문의는

TEL 277-8867

266-8398

FAX 268-5301

알려 드립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편집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원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체험하신 내용이나 그 외의 정보사항 등을 보내 주시면 편집방향에 새로운 디딤돌로 새겨 가겠습니다.

◆ 아 래 ◆

- 내 용 : 칼럼(제언 및 논설), 해외학술행사 참관기, 문학기 산책(수필, 시 등), 정보통신(국내외 정보통신), 진료시 어려운 문제점 등등
- 주소 및 성명, 직직, 증명사진, 연락처 등 기입
- 마감일 : 매월 5일
- 보낼곳 :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192-30 (신성상가 504호)
대한치과의사협회지 간행실
☎ 100-282